

목양칼럼

저도 한 사람 정도는 사랑 할 수 있어요

나오미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저도 한 사람 정도는 사랑 할 수 있어요.”

목사인 아버지 고이치는 외동딸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용서하는 것이란다.

한두 번 용서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는 것이지.”

미우라 아야코의 책 “양치는 언덕” 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건달 같은 료이치와 결혼하겠다는 나오미는 부모님의 만류에

“저도 한 사람 정도는 사랑 할 수 있어요.” 라고 자신만만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음을 나오미는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사랑은 용서” 임을 절절히 체험하기까지

나오미에게겐 수많은 눈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내 사랑의 그릇은 어느 정도일까?”

“정말 나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스스로 답하기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 끝없는 용서로 빚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니, “당신을 끝없이 용서합니다.” 라는 말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나,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끝없는 용서로 사랑하기에

너무나 힘드셨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눈물짓는 6월의 어느 날입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886-5555 http://www.kapcq.org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부목사 김도현/Q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전도목사 이신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송요한 (917)940-0596		
전도사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함미희/4교구 (917)359-2857
황혜옥/중국교포, 중국어부 (718)825-6969	천위지/중국어부 (347)965-0343	진기용/EEP (201)835-3166	
소유영/행정 (917)318-7030	전성호/청년선교부 (201)370-3455		
교육전도사 이명옥/영어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평정은/유년부 (646)423-3583
차평화/중등부 (703)819-8785	최진식/ (646)887-7419	손요한/중학과정 (646)789-1118	
직원 정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Shen de Guia/QPEM (917)254-7455 오재혁 (646)662-9015	
찬양대 1부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 호산나 찬양대	3부 / 시온 찬양대	4부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최진식	지휘 / 최경희	지휘 / 소유영	지휘 / 강혜영
반주 / 임세현	반주 / 김정윤 이승은	반주 / 송소영	반주 / 최미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 머무는교회, 터하는교회, 배우는교회, 나누는교회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원로목사 **장영춘**
PASTOR EMERITUS, REV. YOUNGHOON CHANG

담임목사 **김성국**
SENIOR PASTOR, REV. SEOUNG KOOK KIM

주후 2018년 6월 10일
제 44-23호

주일예배 (1,3부)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36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차상남 장로 3부 / 송동울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출애굽기 31: 1-18	사회자
찬양 CHOIR	나에게 오라	임마누엘 찬양대
	오직 주만 따르리	시온 찬양대
말씀 SERMON	지명하여 부르고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215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185 / 1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사회자
* 표는 일어섬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사회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영광송 ANTHEM		찬양대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2부 / 최원일 장로 4부 / 정길표 장로
광고 및 환영 ANNOUNCEMENT		사회자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215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2부/ 출애굽기 31: 1-18 4부/ 디모데전서 6: 11-16	사회자
찬양 CHOIR	나는 예배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2부 / 지명하여 부르코 4부 /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김성국 목사 오인수 목사
* 찬송 HYMN	예배합니다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 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섬

새가족 환영회

5과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

Jesus is my Superhero Part IV

하랑예찬 주관 어린이 찬양집회

6/16(토) 오후 7:00에 본당

교육부 졸업 예배

6/24(주) 오후 4:00 본당

2018 전교인 여름 수련회

7/2(월) -7/4(수)

수요 기도 예배

영성훈련 수료 예배

오후 8:00 (6/13/18) 사회: 홍승룡 장로

예배선언 사회자

찬송 216 다같이

기도 채영주 장로

성경봉독 홍한나 권사

사도행전 26:9-18

찬양 찬양대

말씀 김성국 목사

주님 누구시니이까

수료식

수료증 수여/성경암송/헌신찬양 훈련자 일동

간증 손정호 집사

광고 사회자

찬송 가서 제자 삼으라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교회소식

6월 성령의 달 - 성령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행사 및 모임

- 6/10(주) 킨장 Open 탁구대회 6/13(수) 영성 훈련 수료 예배 6/16(토) 하랑예찬 찬양 집회
- 6/24(주) 교육부 졸업 예배 6/27(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 예배
- 6/28(목)~30(토) 킨장 여름성경학교 (VBS) 7/2(월)~4(수) 전교인 여름 수련회

알림

- 선교 바자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총수입은 \$87,749.37 입니다. 수고하신 모든 부서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킨장 Open 탁구대회**가 오늘 오후 3:30에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위한 부서 모임**이 6/13(수)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교역자, 부서장, 선교회 회장단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랑예찬 주관 어린이 찬양집회 "Jesus is my Superhero Part IV"**가 6/16(토) 오후 7:00 본당에서 개최됩니다. 모든 다민족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건강 세미나 안내** 1) 시간: 6/16(토) 오전 7:30~8:30 2) 대상: 전교인 3) 장소: 지하 친교실 4)목적: 고혈압, 중풍, 심장마비 등의 조기 증상과 대처법
- 2018 여름 성경학교 안내** * 유치부~초등부: 6/28(목)-30(토), * 영아, 유아부: 6/30(토) * 주제: '아하 예수님' Shipwrecked Jesus rescues! * 등록: 교회 웹사이트 혹은 각 부서 신청서
- 2018년 전교인 여름 수련회 안내** 1) 주제: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2) 일시: 7/2(월)-4(수) 3) 강사: 백정우 목사 (남가주 동신교회 담임) 4) 장소: Sheraton Parsippany Hotel
- 6/16(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지도원 (다음주: 지역장, 구역장)
- 가족기념 장학기금** 정주영 집사, 전소연 청년

새가족

박병욱 (여호수아 4LI1, 박미연 - 마르다) 심규완 (청장년 3BS3, 심현정 - 청장년)

병 환 나주석 권사(4LI10)께서 LJJ병원 570호실에 입원하였습니다.

박현숙 교우(2F1)께서 NY병원 SICU에 입원하였습니다.

금식기도

주 / Kiwi Jin, Margaret Yoo, Grace Moon, Esther Park, Dan Cho, Shen De Guia, Hyunsu Jeong, Julie Bae

월 / David Shin, Lisa Lee, Peter Yoo, Grace Moon, Kiara De La Cruz, Charles Hwang, Marcelo Chan, Margaret Yoo, Tony Lee, Esther Park

화 / Lisa Lee, Grace Moon, Charles Hwang, Kiara De La Cruz, Esther Park, Roomie Huh, Shen De Guia, Jane choe

수 / Jessica Bang, Hyunsu Jeong, Lisa Lee, Grace Moon, Charles Hwang, Kiara De La Cruz, Marcelo Chan, Jen Whang, Soua Hong, Sarah Cho, Peter Kim

목 / Lisa Lee, Grace Moon, Charles Hwang, Kiara De La Cruz, Esther Park, Roomie Huh, Shen De Guia, Jane choe

금 / Peter Kim, Lisa Lee, Grace Moon, Charles Hwang, Kiaa De La Cruz, Esther Park, Sarah Cho

토 / Benita Choi, Grace Moon, Jen Whang, Aeri Choi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QBC	오후 02:15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2:30	
	러시아어	오전 08: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아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아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7:0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중등부실

출석

1부 예배	306	러시아어 예배	36	영아부	39	중등부	57
2부 예배	363	청년 선교부	79	유아부	41	고등부	58
3부 예배	304	QBC	213	유치부	38	청년 대학부	40
4부 예배	162	새벽 예배	840	중국어 교육부	25	교회 학교 예배	453
영어 예배	207	수요 기도 예배	200	유년부	86	주일 낮 장년 예배	1766
중국어 예배	309	새가족 환영회	15	초등부	69	주일 낮 총계	2219

6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최원일 장로

헌신기도	함용식장로	남형욱 장로	채영주 장로	송동윤 장로
책임권사	김홍덕 권사	남인화 권사	이경애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최경선 오영자 홍지혁 강석춘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오성태 송현규 장지숙 정민영	김서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장현미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조인범 김미권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나인에 박석미 한원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정사용	윤지현	최성호

화요일 새가족 환영: 교포부 주일식사: 교포부(다음주: 청장년부)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TV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최동훈(케냐) / 이동철(온두라스) / 이갈렘(중국) / 김호동(불가리아) / 류동하(한국 경남 통영시 사랑도)

금주의 가정예배

2018년 6월 둘째 주

문답 45 문 :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 : 첫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의로움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우리도 또한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월- 사도신경 / 찬송가 96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1:43-46

예수님의 부르심은 특별합니다. 그 이유는 스승이 제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스승이 제자를 찾아 다니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필요하지만, 스승이 제자를 필요로 하는 일은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빌립을 찾으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가르치시며 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도 찾으십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의 찾으심을 오늘도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화- 사도신경 / 찬송가 545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1:47-51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가요? 한 나라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바로 이삭의 아들이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주시는데, 그것은 야곱이 가장 강할 때 불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약할 때, 가장 작을 때, 가장 위기에 처해서 오직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그를 이스라엘 이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나 스스로는 설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은혜로 살고 은혜로 서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인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수- 사도신경 / 찬송가 515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2:1-11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 잔치 이야기입니다.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창피를 당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여 주십니다. 결혼식의 신랑도, 신부도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디다. 구하지도 않았습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 자리에 가장 필요한 것을 당신의 방법대로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삶에도 가장 필요한 것을 허

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매일을 살아갑시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목- 사도신경/ 찬송가 452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2:12-22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유월절의 모든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합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의 보혈로서 죄인 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이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표 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사람들은 결코 그 제물을 돈으로 편리하게 사고 팔아서는 안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값없이 나아가지만, 그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생명 주신 예수님께 온전한 감사와 눈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금- 사도신경 / 찬송가 447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2:23-25

유월절에 예수님께서서는 아무에게도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 또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 속 깊은 곳까지 아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의도 악한 생각들까지도 다 아십니다. 어떤 것도 그분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삽시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토- 사도신경/ 찬송가 283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창세기 3:1-3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칠흑 같았던 밤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속을 걷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고,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합니다. 찾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찾지 못할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기 시작하고, 니고데모는 마침내 그 빛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동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우리를 찾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 예수님께 겸손히 구하며 나아갑시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